

7주차 | 학습목차



학습목차	<p>01. 김활란의 성장 과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물포와 기독교 • 이화학당 입학 • 이화학당 대학과 <p>02. 김활란의 여성계몽운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선 YWCA 연합회 • 미국 유학 후 김활란의 활동 • 농촌계몽운동과 두번째 미국 유학 <p>03. 김활란의 일제 협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사참배 강요와 기독교계 학교의 위기 • 조선 여성의 전쟁 동원 • 김활란의 변명 <p>04. 김활란과 여성 정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활란 • 국회의원 선거와 낙선 • 김활란의 정치 활동에 대한 평가 	<p>05. 고향경의 성장 과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향경의 학창시절 • 일본 유학시절 • 미국 유학시절 <p>06. 고향경의 사회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성자매원 설립 • 영아원과 가정료 설립 • 고향경의 친일 협력 <p>07. 고향경의 정치 참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제건과 국가재건 • 부녀국 초대 국장 • 영국 유엔협회 순회 강연 <p>08. 고향경의 신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한어머니회 • 서울여자대학교 설립
-------------	---	---

7주차 |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



3차시

김활란의 일제 협력

7주차 | 학습목표

3차시. 김활란의 일제 협력



학습목차	<p>학습목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일제의 전시체제에 협력한 김활란의 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 ■ 친일 협력에 대한 김활란의 변명에 대해 비판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.
학습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사참배 강요와 기독교계 학교의 위기 ■ 조선 여성의 전쟁 동원 ■ 김활란의 변명



신사참배 강요와 기독교계 학교의 위기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 | 3차시 김활란의 일제 협력



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동화의 논리 ‘내선일체(內鮮一體)’

- 1937년 1월
 - 총독부 주최 방송 강좌에서 ‘내선일체’를 선전한 김활란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 | 3차시 김활란의 일제 협력



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동화의 논리 ‘내선일체(內鮮一體)’

- 1937년 7월
 - 중일전쟁 발발
- 1937년 8월
 - 김활란, 국방헌금 모집을 위한 단체 ‘애국금차회’ 발기인으로 참여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 | 3차시 김활란의 일제 협력



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기독교계 학교의 대응

- 1935년
 - 평양의 미션스쿨들, 신사참배 거부
- 1936년
 - 북장로교회 교육선교 철수 결정
 - 감리교계 선교부와 캐나다 선교부,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의 일부로 해석



조선 여성의 전쟁 동원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3차시 김활란의 일제 협력



김활란의 친일 협력

- 1938년
 - 경성기독교연합회 발회식에 평의원으로 참석
 - 조선YWCA연합회를 국제YWCA에서 탈퇴 시킨 후, 일본 YWCA에 가입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3차시 김활란의 일제 협력



김활란의 친일 협력

- 일제 협력
 - 각종 시국 좌담회 및 친일 단체 (조선부인문제연구회, 애국금차회 등) 참여
 - ‘내선일체’를 중용하는 논설 발표
 - 전쟁 선전단체 ‘임전대책협력회’ 활동



애국금차회 발족식

[출처01] 《京城日報》 1937.8.21.2면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3차시 김활란의 일제 협력



여성의 무장

- “우리 총후의 반도 여성은 지금 이 도의의 전쟁에 한 사람 투사로서 가담하고 있다는 영광을 가졌다. 도의의 전쟁에 여성은 모름지기 도의의 무장을 갖추자는 말이다.”



조선임전보국단 결전 부인 대회

조선임전보국단 결전 부인 대회 연설, 1941.12

[출처02] 《매일신보》 1941.12.28.2면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3차시 김활란의 일제 협력



여성의 전쟁 동원

- 1942년 3월
 -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주최 근로봉사운동에 지도위원으로 참여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3차시 김활란의 일제 협력



〈감격과 가중한 책임 - 전두에 나설 여학생의 결의〉

- “지금 우리의 형편은 전선과 총후와 함께 전쟁에서 이기는 것 외에 다른 소망과 목적이 없는 것이다. 나라에서는 전쟁에 이기는 것을 목적인 정치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을 가르칠 때 전쟁에 이겨내기에 필요한 인물을 길러내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는 것이다.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3차시 김활란의 일제 협력



〈감격과 가중한 책임 - 전두에 나설 여학생의 결의〉

- 이러한 긴급한 시국화에 처한 이때에 문과계 여자 전문학교가 여자 특별연성소 지도자 양성기관으로 이름을 달리하게 된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.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기관이 되기를 기다렸다”

《매일신보》 1944. 1. 4.



김활란의 변명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3차시 김활란의 일제 협력



이화여전을 지키기 위한 ‘친일’

- “1944년 여름 나는 그들에게 끌려서 징병유세를 다녀야 했다. 내가 일본 정부에 의해서 고통을 받은 것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지만 이때만큼 심신을 그르쳐 놓은 사건은 없었다.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과 그보다 더 기세 등등한 감시와 강요 하에 나는 살이 떨리고 양심이 질식할 징병유세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.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황경 | 3차시 김활란의 일제 협력



이화여전을 지키기 위한 ‘친일’

-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영혼을 새카맣게 불태우듯 나를 어둡게 만들었다. 나는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때까지 이화를 지켜보겠다고 바둥거리며 남아 있다가 이러한 일마저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나의 처사를 거의 후회하기까지 했다. 그해 겨울 나는 심한 안질을 얻고야 말았다.”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황경 | 3차시 김활란의 일제 협력



학습정리

- 김활란의 친일 협력 행위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황경 | 3차시 김활란의 일제 협력



이화여전을 지키기 위한 ‘친일’

- “이화의 역사를 알고 이화의 살림을 알며 이화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내가 그렇게 쉽사리 좌절해서 이화를 포기할 수 없었다. 변명도 외교집도 아니었다.”
- 일본에 학교를 넘겨줄 수 없다는 신념 → 친일 협력
- ‘김활란 = 이화’의 동일시 → 정치로 향하는 길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황경 | 3차시 김활란의 일제 협력



다음 차시에서는

- 해방 후 김활란의 정치 참여

SOURCES



[출처01] 《京城日報》 1937. 8. 21. 2면

[출처02] 《매일신보》 1941. 12. 28. 2면



기획·조정
이화진·정다영

교안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김록현